

수행정보 및 귀인정보가 관찰자의 귀인자 평가에 미치는 효과

김진국
전남대학교 심리학과

과제의 특성 및 자기기여적 귀인이 관찰자가 귀인자를 과제능력, 겸손성, 정직성 및 호감도의 측면에서 판단하는데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알아보기 위하여 4개의 실험을 수행했다. 네 실험 모두에서 자기기여적 귀인은 낮은 평가를 유발했다. 이 경향은 외적으로 결정되는 과제에서 특히 심했다. 과제능력의 평가는 일차적으로 수행결과의 함수로 변화했으나 외적인 과제에서는 귀인방향 역시 중요했다. 겸손성 평가에서는 자기기여적인 귀인은 겸손치 못한 것으로, 역-자기기여적 귀인은 겸손한 것으로 판단되었다. 정직성의 평가는 본 연구에서 사용된 독립변인들에 의해 잘 설명이 되지 않았으며, 귀인이 일관되지 않아도 부적인 평가가 나타나지 않았다. 호감도는 자기기여적일 때는 낮게, 역-자기기여적일 때는 높았으나 내적 결정과정에서는 수행결과의 주효과도 있었다. 호감도를 기준변인으로 하여 수행된 회귀분석에서는 겸손성의 예언력이 가장 컸다. 그러나 내적 결정과정에서는 과제능력의 예언력도 컸다. 자기표현 방략으로서의 귀인이라는 측면에서 연구결과와 앞으로 연구방향에 대하여 논했다.

어떤 과제의 수행결과가 성공일 때는 내귀인을 하고, 실패일 때는 외귀인을 하는 경향이 있음은 많은 연구에서 거듭 확인된 바 있다(예를 들면, Bradley, 1978; Miller, 1978; Miller & Ross, 1975; Zuckerman, 1979 등). 이런 양식의 귀인이 어떠한 이유에서 이루어지는가에 대한 여러가지 설명이 있으며, 설명근거에 따라 자기교양적 귀인, 자기보호적 귀인, 방어적 귀인, 자기기여적 귀인(self-serving attribution) 등 여러가지 명칭으로 불리워 왔다. Miller & Ross (1975)는 성공의 내귀인과 실패의 외귀인이 귀인자의 자기지각을 교양시키거나 보호하는데 기여한다는 의미에서 이를 자기기여적 귀인이라

* 본 연구의 실험들은 김요선(전남대학교 심리학과)과 박충하(전남대학교 교육대학원)의 학사 및 석사학위과정의 일부로 수행되었다. 자료수집 및 자료처리에 노고를 아끼지 않은 김요선 군에게 고마운 뜻을 표한다.

고 하였다. 그러나 Bradley(1978)는 자기기여적 귀인을 보고한 여러 연구들을 개관하고는 :

“자기기여적 귀인과정을 지지하는 여러 연구에서, 실험과제에 대한 피험자의 수행과 그 결과를 실험자 및 타인이 관찰하였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실험상황은 수행의 평가에 대한 피험자의 관심이 극대화되도록 하는 동시에, 결과적으로 개인이 정적 및 부적 결과를 자기고양적 및 자기 보호적으로 귀인하려는 경향을 과장하도록 하는 방식으로 설계된 것이다(p.63)”

라고 주장했다. 그녀는 Schlenker(1975)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기기여적 귀인은 타인의 귀인자에 대한 평가를 유지 또는 상승시키려는 욕구에서 비롯될 수 있다고 보았을 뿐만 아니라 여기에서 한걸음 더 나아가 자기기여적 귀인은 타인의 평가(public esteem)를 극대화하기 위한 공개적인 자기표현(public self-presentation)으로 간주될 수 있으며, 이러한 욕구는 상황에 따라서는 부적 결과에 책임을 질 때 가장 잘 달성될 수 있다고 하였다. 즉 Bradley(1978)가 주장하는 바를 요약하면 많은 연구에서 자기기여적 귀인이 나타난 것은 대부분의 실험상황이 관찰자 또는 실험자의 능력평가가 중요한 상황이었기 때문이며, 만일 귀인자가 겸손한 사람으로 평가되는 것이 중요한 상황이라면 이때는 역-자기기여적 귀인(counter-self-serving attribution)이 이루어질 것이라는 내용이다

실제로 역-자기기여적 귀인을 나타낸 연구도 다수 있다(예를 들면, Beckman, 1973; Burger & Rodman, 1983; Feather & Simon, 1971; Gill, 1980; Ross, Bierbrauer & Polly, 1974; Scanlan, 1977). 그러나 이러한 연구들의 대부분은 불행히도 자기기여적 귀인에 대한 기존의 개념적 틀(동기적이든 정보처리적이든 간에)에 맞추어 해석되어져 왔을 따름이다. Gill(1980)의 연구를 예로 들면 그녀는 2인1조로 하는 2개 팀을 만들고 이들이 운동미로(motor maze) 문제를 경쟁적으로 해결하게 하였다. 비슷한 2개 실험에서 얻은 승·패에 대한 귀인은, 팀간 귀인에서는 승리에 대하여 각각 81%, 75%가 내귀인을, 패배에 대하여는 56%, 72%가 외귀인을 하였다. 그러나 팀내 귀인에서는 승리에 대하여는 두 실험 모두 63%가 외귀인(파트너)을 하고 패배에 대하여는 각각 67%, 72%가 내귀인을 하였다. 다시 말하면 팀간 귀인에서는 자기기여적 귀인이, 팀내 귀인에서는 역-자기기여적 귀인이 나타났다. 이 결과를 Gill(1980)은 팀-고양적 귀인 또는 규범을 반영하는 것이라고 해석했다. 그러나 그보다는 Bradley(1978)가 지적한 바와 같이 능력평가가 중요한 상황이었는가 하는 측면과 Schlenker & Miller(1977), Schlenker, Soraci & McCarthy(1976)가 지적한 귀인맥락 및 대인맥락에서 재해석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즉 이 실험에서 피험자들이 처한 상황은 관찰자가 유능한

사람으로 평가해 주는 것 보다는 관찰자가 이기적인 사람이 아니라고 보아주는 것이 한층 더 중요했을 수도 있으며, 동료와의 직접적인 접촉(Schlenker 등, 1976) 및 접촉을 통해 형성된 단결심(Schlenker 등, 1977) 등이 귀인방향에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자기기여적 귀인과 관련된 또 하나의 중요한 문제점은 이런 양식의 귀인이 실제로 어떤 효과를 주는지에 대한 검토가 거의 이루어진 바 없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자기기여적 귀인이 자존심을 유지 및 고양시키려는 동기로부터 비롯된다는 추론만 무성했지, 실제로 자존심 수준의 변화와 관계 있는가 하는 문제는 최근까지 제대로 다루어지지 않아 왔다(Ross & Fletcher, 1985). 특히, 자기표현방략으로서의 역-자기기여적 귀인이 인상형성에 어떠한 효과를 미치는가에 대한 연구는 이루어진 바 없으며(Weary & Arkin, 1981), Carlston과 Shovar(1983)의 연구가 유일한 것으로 보인다.

Carlston 등(1983)은 성공의 내귀인, 실패의 외귀인이 귀인자의 과제 수행 능력에 대한 평가를 극대화 시킬지는 모르나 관찰자는 이러한 귀인을 겸손치 못하고(immodest), 부정직하고, 부정확한 귀인으로 지각하여 결과적으로 사회적 불인정(disapproval)을 유발할지도 모른다는 예언하에 두개의 실험을 했다. 또한 이러한 차원들에서의 평가에는 과제의 특성, 귀인의 공개 및 비공개 등의 요인이 서로 다른 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예언했다. 이 실험들의 결과는 대체로 가설과 일치하여 자기기여적 귀인은 부적평가와 관련되어 있었다.

본 연구의 목적은 관찰자가 과제능력, 겸손성, 정직성 및 호감성 차원에서 귀인자를 평가할 때 수행(성공—실패) 및 귀인(내귀—외귀)이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알아보는 데 있다. 이를 위해서는 수행 및 귀인과 관련된 몇가지 중요한 변인들을 고려해야 하는데 이를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과제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수행과제 내적으로 결정되는 것(internally determined task)일 때와 외적으로 결정되는 것일 때 수행과 귀인이 갖는 효과는 다를 것이다(Bradley, 1978; Carlston 등, 1983). 관찰자들은 외적 결정과제의 경우 귀인정보에 더욱 주목하는 반면 내적 결정과제에서는 수행결과에 더욱 주목하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인지과정은 과제능력, 겸손성, 정직성 및 호감도의 평가차원 각각에 상이한 효과를 미치게 될 것이다. 예를 들어 어떤 사람이 외적 결정과제에서 성공을 하고 이를 운에 귀인 했다고 하자. 이때 관찰자는 이 사람을 겸손하고 정직하며 호감이 간다고 판단을 하겠지만 유능하다고 보지는 않을 것이다. 반면 이 과제가 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었다면 관찰자는 이 사람을 유능한 사람으로 보기는 하겠지만 겸손하다거나 정직하다고 판단하지는 않을 것이다. 둘째, 과제특성은 과제능력, 겸손성, 정직성 및 호감도 상호간의 관계에도 영향을 미칠 것으로 예상된다. 호감도를 기준변

인이라고 하고 과제능력, 겸손성 및 정직성을 예언변인이라고 했을 때 이 세 변인 중 어느 것이 호감도와 가장 밀접한 관계를 갖는가 하는 문제에도 과제의 특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내적 결정과제에서는 수행정보가 중요하므로 호감도의 평가에 과제능력이 큰 영향력을 가질 것이다. 그러나 외적결정 과제에서는 귀인정보가 중요하므로 과제능력보다는 겸손성이나 정직성이 큰 영향력을 가질 것으로 예상된다. 세째, 과제능력의 평가에 있어서 성공—실패라는 수행결과 뿐만이 아니라 수행의 과정도 영향을 미칠 것이다. 과제의 성공을 손쉽게 이루었다든가, 성공의 수준이 극단적이라면 관찰자의 과제능력에 대한 평가는 높아질 것이다. 네째, 정직성의 평가는 일차적으로는 귀인자의 귀인과 관찰자가 지각하는 원인이 일치하는가에 의하여 좌우될 것이다(Carlston 등, 1983). 그러나 정직성과 관련된 중요한 변인의 하나는 일관성일 것이다. 귀인자의 귀인이 일관성이 없다면, 즉 경우에 따라서 내귀를 하기도 하고, 외귀를 하기도 한다면 이 사람은 부정직한 것으로 판단될 것이다. 다섯째, 수행은 개인적으로 이루어질 수도 있고 집단적일 수도 있다. 개인수행의 경우 내—외귀인은 개인—상황(운, 과제의 난이도)으로 비교적 명확하지만, 집단수행의 경우 외귀인은 타인 및/또는 상황 등으로 더욱 복잡해질 수 있다. 이때의 자기기여적 귀인은 최소한 겸손성, 정직성 및 호감도차원에서 낮은 평가를 유발하게 될 것이며, 역-자기기여적 귀인은 높은 평가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외귀인이 운이나 과제와 같은 상황적 요소가 아닌 타인, 즉 집단수행을 한 동료에게 이루어진다면 이때는 더 극단적인 평가가 이루어질 것으로 기대된다.

이상과 같은 내용을 검증하기 위해 4 개의 실험을 수행했다. 실험 I 은 외적 결정과제의 개인수행으로 교내탁구대회 단식결승전을, 실험 II 는 외적 결정과제의 집단수행으로 교내탁구대회 복식결승전을, 실험 III 은 내적 결정과제로 대학생의 평균평점을, 실험 IV 는 내적 결정과제로 고등학생의 내신성적을 택했다.¹⁾

- 1) 본 연구의 피험자와는 독립적으로 구성된 40명의 대학생 표본에게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가 포함된 18개 과제의 리스트를 제시하였다. 제시된 과제의 수행결과가 능력 또는 노력에 의한 것인지, 아니면 운 및 기타 상황적 요인에 의한 것인지를 7점척도(1~7)상에서 판단케 했다. 내적 결정과제일수록 큰 점수를 받게 되어 있는 이 척도에서 평정점수의 평균은 평균평점(M=6.175), 내신성적(M=5.950), 탁구단식결승(M=5.725), 탁구복식결승(M=5.225)의 순이었으며, 이는 전체적 비교에서 유의하게 달랐으며 ($p < .01$), 개별비교(내신성적은 제외하고) 결과도 모두 유의하게 ($p < .01$; 일방검증) 달랐다. 고교 내신성적은 단식결승 및 평균평점과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는 표본이 대학생이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주목해야 할 점은 본 연구에서의 내적-외적 결정과제라 함은 본 연구에서 사용된 과제들 중에서 상대적으로 그러하다는 뜻이다. 절대점으로 판단한다면 가장 낮은 점수를 받은 탁구복식도 내적(능력 및 노력)으로 결정되는 과제라 할 수 있다.

이 실험들은 자기표현 방략으로써의 귀인이 실제로 어떤 평가를 유발하게 하는가를 확인 가능하게 해 줄 뿐만 아니라 귀인행동에 내재해 있는 복잡한 사고과정을 간접적으로나마 추론할 수 있게 해 줄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귀인 문제를 대인지각과 연결시켜주고 실용적인 면에서는 인상판리의 실천적인 틀을 제시해 줄 수 있을 것이다.

실험 I : 외적 결정과제의 개인수행

외적 결정과제로는 교내탁구시합을 선택하였으며, 단식경기는 개인수행임을 나타낸다. 이 과제에서 조작된 변인은 성공 - 실패(승리 - 패배), 수행과정(일방적 - 접전적), 내귀 - 외귀(실력 - 운), 귀인일관성(일관 - 비일관)의 네가지였으며, 종속변인으로는 호감도, 과제능력, 겸손성, 정직성의 네가지를 선정했다.

이 실험에서 기대되는 주요결과를 정리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종속변인들간의 상관은 대체로 높을 것이다. 둘째, 과제능력은 다른 종속측정치들과 다소 낮은 상관을 보일 것이다. 셋째, 자기기여적 귀인은 최소한 겸손성, 정직성, 호감도의 측면에서 낮은 평가를 유발할 것이다. 반면 역 - 자기기여적 귀인은 겸손성 및 호감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을 것이다. 넷째, 과제능력평가는 일차적으로 수행결과에 의해서 좌우되며, 수행과정은 이를 극화 또는 중화시키는 작용을 할 것이다. 손쉬운 성공 즉 일방적 승리는 높은 평가를 유발하고, 일방적 패배는 가장 낮은 평가, 접전적 승리나 패배는 이 둘 사이에 위치할 것이다. 다섯째, 정직성 평가는 일차적으로 행위자의 귀인과 관찰자의 원인지각이 일치하는가에 따라 좌우될 것이다. 그러나 행위자의 귀인이 일관성이 없다면, 즉 대상에 따라 내귀하기도 하고 외귀하기도 한다면 이는 부정직한 행동으로 평가될 것이다.

방 법

실제 자극인물의 수행결과(성공 - 실패), 귀인(일관 - 비일관), 수행과정(일방적 - 접전적), 귀인일관성(일관 - 비일관)의 조건들을 변화시켜 $2 \times 2 \times 2 \times 2$ 피험자간 요인설계(factorial between subjects design)가 이루어졌다. 여기서 일관된 귀인은 “모든 사람에게” 내 또는 외귀인하는 것이며, 비일관된 외귀인은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외귀인하나, “절친한 친구에게”는 내귀인을 하는 것이다. 비일관된 내귀인은 이와 반대이다.

피험자 하계방학 중 영어특강을 수강하는 대학생 192명(남자 100명, 여자 92명)

재료 및 절차 “교내 탁구대회 단식결승전”을 수행과제로 하고, 수행 및 귀인에 관한 4가지 정보를 조작하여 자극인물을 만들었다. 자극인물의 종류는 16가지가 되는데, 예를 들어 수행과정이 일방적이고 수행결과가 성공이며 귀인 일관성 및 귀인방향이 비일관된 외귀일 때 자극인물에 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A는 교내탁구대회 단식부분 결승전에서 상대방을 일방적으로 누르고 우승을 차지했다(세트스코어 3 : 0). A는 경기가 끝난 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승리의 원인을 경기 당시 컨디션과 운이 좋았다고 말했지만, 절친한 친구 B에게는 자신의 탁구실력 때문이었다고 말했다.”

이와 같은 자극인물을 제시하고 A에 대해 과제능력, 겸손성, 정직성 및 호감도 등을 0점부터 10점까지 11 점척도상에서 평가하도록 하였다. 평가과정에서 이런 4가지 차원의 종속측정치들이 나타낼지도 모르는 순서효과(order effect)를 통제하기 위해 호감도평가를 맨 먼저 하도록 하는 경우와 마지막에 하는 경우, 그리고 나머지 세 종속변인들의 제시순서를 조합(6가지)하여 12(2×6)가지 제시방법을 만들었다. 따라서 재료의 종류는 총 192개(16 자극인물×12 순서조합)가 되었으며, 이 재료는 남녀대학생 192명에게 하나씩 무선적으로 할당되었다.

종속변인의 측정에서 겸손성은 “어느 정도 겸손 또는 오만한가”, 정직성은 “어느 정도 정직 또는 부정직한가”, 호감도는 “이런 사람을 어느 정도 좋아 또는 싫어하는가”로 직접적인 방식으로 물었다. 그러나 과제능력의 평가에 있어서는 상황을 교내탁구대회 단식결승전으로 했기 때문에 탁구실력을 평가하도록 한다면 이때의 평가는 수행과 관계없이 극단적으로 높은 점수에 집중될 가능성이 있다. 따라서 “A는 내년에 다시 동일 종목에 출전하겠다고 한다. A가 내년에 우승할 가능성은?”으로 했다.

결 과

자료의 예비적 분석에서 종속변인들의 순서효과는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따라서 자료는 각 자극인물에 대하여 합해졌고 결과적으로 자극인물당 12 사례가 있는 2×2×2×2 피험자간 요인설계가 되었다. 분석결과는 종속측정치간의 상관, 과제능력의 평가, 겸손성의 평가, 정직성의 평가, 호감도 평가의 순으로 제시한다.

종속측정치간의 상관 종속측정치간의 상관계수는 <표 1>로 제시되어 있으며 이는 모두 유의했다($p < .001$). 이 상관계수의 크기는 .429 ~ .648로 Carlston

〈표 1〉

종속측정치간의 상관

측 정 치	검 손 성	정 직 성	호 감 도
과 제 능 령	.494***	.429***	.430***
검 손 성		.598***	.648***
정 직 성			.591***

*** $p < .001 (df = 190)$

등(1983)이 보고한 .45 이하의 상관보다 더 크다. 이는 본 실험의 수행과제가 상황적 영향이 큰 것이기 때문으로 판단되며, 실험전의 기대와 일치한다. 그러나 이 결과에는 다른 변인이 혼입되어 있을 수 있다. 즉 과제능력으로써 내년도의 우승 가능성"을 물었는데 이에 대한 반응에는 순수한 과제능력 이외에 겸손하거나 정직하거나 호감을 느끼는 대상에 대한 소망적 기대가 포함되어 있을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즉 본 실험에서 과제능력과 다른 종속변인간의 상관은 제3의 요인에 의하여 허구적으로 높게 나타났을 가능성이 있다.

호감도를 기준변인으로 하고 과제능력, 겸손성, 정직성을 예언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stepwise multiple regression analysis)을 했다. 분석결과 겸손성($\beta = .424, F_{(1,188)} = 38.032, p < .001$)의 예언력이 가장 컸고, 그 다음은 정직성($\beta = .2983, F_{(1,188)} = 20.320, p < .001$)이었으며 과제능력($\beta = .093, F_{(1,188)} = 2.307, ns$)은 유의한 효과가 없었다. 이 결과는 변인들간의 상관이 전체적으로 높아 회귀분석의 적용이 곤란하다는 한계점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과제능력의 평가가 다른 차원과 비교적 독립적으로 이루어졌을 가능성이 다분함을 보여준다.

중다회귀분석의 부적합성은 종속변인들간의 상관을 다른 측면에서 좀더 직접적인 방식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음을 암시한다. 호감도를 중심으로 하여 다른 변인들과의 상관을 보면 그 크기는 겸손성($r = .648$), 정직성($r = .591$), 과제능력($r = .430$)의 순이다. 이들 간의 상관의 크기의 차이를 비교하면 호감도와 겸손성, 호감도와 정직성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없었으나 이들과 호감도와 과제능력 사이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각각 $t_{(189)} = 3.967, p < .001$; $t_{(189)} = 2.646, p < .01$). 이는 과제능력의 평가는 다른 종속측정치와 상대적으로 낮은 상관을 보일 것이라는 본 실험의 두번째 가설을 지지해 주는 결과라 할 수 있다. 또한 겸손성, 정직성, 호감도간의 상관은 .591~.698로 높았으나 과제능력과 다른 세 종속측정치간에는 .494 이하의 상대적으로 작은 상관이 있었다. 이 두 상관계수집단의 통합상관계수는 각각 .613, .453이었으며 이 두 통합상관계수간에는 유의한 차이가 있었다($Z = 2.29, p < .05$).²⁾

과제능력의 평가 과제능력의 평가치를 4 원변량분석한 결과 수행결과와 주요 과($F_{(1,176)} = 4.557, p < .05; \epsilon^2 = 2.22\%$)와 수행과정과 수행결과와 상호작용 효과($F_{(1,176)} = 5.931, p < .05; \epsilon^2 = 2.88\%$)가 나타났으며 독립변인의 조작은 전체변량의 14.42%를 설명해 주었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승리(성공)했을 때($M=6.35$)에 실패(패배)했을 때($M=5.61$)보다 더 과제능력이 있는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그 수행과정이 일방적(승리; $M=6.65$: 패배; 5.06)일 때 이 경향은 더욱 심해졌다. 이는 실험전에 기대했던 바와 일치한다. 접전이었을 경우에는 성공($M=6.06$) - 실패($M=6.17$)간에 차이가 없었는데 이는 본 실험의 접전상황(세트스코어 3:2)이 노력을 함축하고 있어 실패한 경우 노력에 대한 암묵적인 높은 평가가 능력에서의 낮은 평가를 보상해 준 것으로 판단된다. 귀인방향과 일관성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예상치 못했던 것이다. 비일관된 외귀(대부분에게는 외귀, 친구에게는 내귀하는 것), 즉 운에 귀인하다가 실력에 귀인하는 것은 성공, 실패와 관계없이 높은 평가($M=6.60$)를 유발하였으며, 실력에서 운으로 변화하는 비일관내귀($M=5.92$)는 이와 반대의 경향을 보였다.

이 결과 중 주목할 만한 것은 귀인방향과 수행결과와 상호작용효과가 없었던 점이다. 다시 말하면 자기기여적 귀인은 과제능력평가에 유의한 영향을 주지 못했다고 할 수 있다. 이는 최소한 본 실험에서와 같은 외적결정과제에서는 자기기여적 귀인이 능력평가에 도움이 되지 못함을 시사한다.

겸손성의 평가 어느 독립변인도 유의한 주효과는 없었지만 수행결과와 귀인방향의 상호작용효과가 두드러졌다. 성공 - 외귀인($M=6.69$), 실패 - 내귀인($M=5.92$)의 역 - 자기기여적 귀인일 때 더 겸손한 것으로 평가되고, 성공 - 내귀인($M=4.25$), 실패 - 외귀인($M=3.90$)의 자기기여적 귀인일 때는 겸손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F_{(1,176)} = 45.262, p < .001$). 이런 효과를 설명변량이라는 측면에서 보면 겸손성차원 점수의 전체변량 중 29% ($\epsilon^2 = 29.34$)를 네가지 독립변인이 설명해 주었는데 이 중의 2/3 정도 ($\epsilon^2 = 18.63$)가 수행결과와 귀인의 상호작용에 의한 것이었다. 이는 역 - 자기기여적 귀인이 아니라 자기기여적 귀인인가가 겸손평가에 중요한 영향을 미칠 것이라는 가설을 지지해 준다.

한편, 수행결과×귀인방향×귀인일관성의 3차 상호작용효과도 유의했다 ($F_{(1,176)} = 11.528, p < .001; \epsilon^2 = 4.63$). 성공일 경우의 비일관된 외귀, 즉 대개의 사람에게서는 운에 귀인하고 절친한 친구에게는 실력에 귀인하는 자극인물이 가

-
- 2) 통합되었고 또 종속적인 상관계수의 차이 검증에 적절한 방법이 없어 독립적인 두 단일상관계수의 차이검증법을 사용했다. 이 방법의 적용은 전적으로 타당하지는 않으나 1종오류를 범할 확률은 더 적은 것이다.

장 높은 평가($M=6.75$)를 받았으며, 모든 사람에게 실력에 귀인한 경우 가장 겸손치 못하다는 평가($M=3.38$)를 받았다. 실패일 경우에는 일관성있는 내귀인($M=6.58$)이 가장 겸손한 것으로 나타났으며, 일관적인 외귀인($M=3.13$)은 그 반대였다. 흥미있는 것은 비일관된 귀인이 한가지 경우, 즉 실패한 후 대부분의 사람들에게는 실력에 귀인하고 절친한 친구에게는 운에 귀인하는 비일관 외귀인의 경우에만 겸손성 평가가 떨어지는 경향을 보였고, 그 외의 경우에는 오히려 더욱 겸손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있다는 점이다. 이는 절친한 친구에게 역-자기기여적 귀인으로 전환하는 것은 그렇지 않은 행동에 비해 겸손하게 판단될 것이며, 성공하고서 다른 사람에게는 외귀인을 하고 절친한 친구에게 솔직히 이야기 하는 것은 겸손한 사람이 취하는 당연한 행동으로 판단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정직성의 평가 정직성의 평가는 귀인의 일관성과 밀접한 관계를 가질 것으로 기대했으나 이 보다는 주로 귀인방향의 함수로 변화하였다. 즉 귀인방향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F_{(1,176)} = 6.863, p < .01; \epsilon^2 = 3.16\%$), 귀인방향 \times 귀인일관성 ($F_{(1,176)} = 12.975, p < .001; \epsilon^2 = 5.96\%$), 귀인방향 \times 수행결과 ($F_{(1,176)} = 4.392, p < .05; \epsilon^2 = 2.02\%$), 귀인방향 \times 수행결과 \times 귀인일관성 ($F_{(2,176)} = 5.870, p < .05; \epsilon^2 = 2.70\%$)의 상호작용효과가 있었으며 전체적인 설명 변량은 23.64%였다.

일반적으로 외귀인한 경우($M=5.25$)보다는 내귀인($M=6.08$)한 경우 더 정직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특히 실패시의 외귀인($M=4.60$)은 더욱 부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귀인방향과 귀인일관성간의 상호작용효과는 정직성 점수의 변산을 가장 잘 설명해 주는 변산원인데 일관된 내귀인일 때($M=6.69$) 정직한 것으로 일관된 외귀인일 때($M=4.71$)은 부정직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또한 비일관된 귀인들은 이 중간의 평가를 받았는데 관찰자의 귀인편기(attribitional bias)와 일치하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정직하게, 일치하지 않는 방향으로의 변화는 부정직하게 평가되었다. 이 경향은 수행결과에 따라 상이한데 성공일 경우의 귀인방향과 귀인일관성의 상호작용효과는 두드러지지 않으나, 실패한 경우의 일관된 내귀인은 극단적으로 높은 정직성 평가($M=7.25$)를, 일관된 외귀인은 극단적으로 낮은 정직성 평가($M=3.83$)를 유발했다.

이상의 결과를 종합하면 본 실험과 같은 과제에서의 정직성 평가는 주로 귀인방향의 함수로 변화한다고 볼 수 있다. 즉 외귀인은 정직성과, 내귀인은 부정직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반면 귀인일관성은 극단적 평가를 증화하는 경향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또한 성공일 경우에 귀인방향은 정직성 평가에 그리 중요하지 않으나 실패에 대한 자기기여적 귀인은 최악의 정직성 평가를 유발했음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호감도 평가 호감도 점수의 4 원변량분석 결과는 호감도 평가가 매우 복잡해 몇몇 변인의 함수로 보기 힘들음을 시사한다. 5개의 변산원(주효과 1개, 2원상호작용효과 2개, 3원상호작용효과 2개)이 유의한 영향을 미쳤으며(전체 설명변량은 23.64%), 변산원들에는 네개 독립변인이 모두 포함되어 있다. 유의한 변산원 중 설명변량이 큰 것은 수행결과×귀인방향($F=14.463, p<.001; \epsilon^2=6.28\%$), 수행결과×귀인방향×귀인일관성($F=8.392, p<.01; \epsilon^2=3.61\%$), 귀인일관성의 주효과($F=7.130, p<.01; \epsilon^2=3.09\%$)의 순이므로 이들을 중심으로 결과를 해석하고자 한다.

자기기여적 귀인(성공 - 내귀인; $M=4.79$: 실패 - 외귀인; $M=3.60$)은 부적 평가를, 역 - 자기기여적 귀인(성공 - 외귀인; $M=5.58$: 실패 - 내귀인; $M=5.75$)은 정적 평가를 유발했다. 실패의 외귀인은 특히 낮은 평가를 받았다. 이 경향은 귀인일관성을 고려하면 더욱 복잡해져 성공일 경우 비일관된 귀인($M=5.81$)이 일관된 귀인($M=4.56$)보다 더 호의적으로 평가되었다. 이러한 경향은 성공한 경우의 겸손성 평가와 매우 유사해 성공했을 때의 호감도는 겸손성의 평가와 밀접한 관련이 있을 것임을 암시한다. 즉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운으로 승리했다고 말하나 친구에게는 실력 때문이라고 하는 비일관된 외귀($M=6.00$)는 유능하고 동시에 겸손한 사람이 취하는 규범적 행동이라 할 수 있다. 이런 양식의 행동은 부정직한 행동으로 평가되기 보다는 유능한 사람의 겸손한 행동으로 지각하게 하고, 이는 다시 호감도에서 높은 평가를 유발한 것으로 판단된다. 반면 비일관된 내귀인에 대한 높은 평가($M=5.63$)는 타인의 성공을 외귀인시키고자 하는 관찰자 편기와 일치하기 때문이라고 추론해 볼 수 있다.

논 의

본 실험의 결과는 대체로 가설을 지지해 주었다. 가장 중요한 것은 자기기여적 귀인이 관찰자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가인데, 자기기여적 귀인은 겸손치 못하고, 부정직하며, 호감이 가지 않는다는 평가를 유발했을 뿐만 아니라 과제능력의 평가에도 도움을 주지 못했다. 특히 실패를 외귀인 하는 것은 최악의 평가를 유발했다. 이러한 결과는 자기기여적 귀인이 자아방어에는 순기능적일지도 모르지만 인상관리의 측면에서는 역기능적임을 보여준다. 오히려 역 - 자기기여적인 귀인이 높은 평가를 유발했는데 이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받아들이며 기대하는 사회규범과 일치한다. Bradley(1978)가 지적한 바와 같이 자기기여적 귀인은 관찰자의 능력평가가 극히 중요하고 과제가 내적으로 결정되는 상황에서 빈번히 이루어진다고 할 수 있다.

귀인일관성은 정직성 평가와만 관련되어 있을 것으로 기대했으나 결과는 겸

손성 및 호감도와도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더욱 중요한 것은 비일관된 귀인이 정직성, 겸손성 및 호감도의 차원에서 부적인 평가를 유발한다고 볼 수 없다는 점이다. 특히 비일관된 외귀인, 즉 대개의 사람들에게는 운이 귀인하고 절친한 친구에게는 실력 때문이라고 말하는 행동은 세 차원 모두에서 모든 사람에게 운이라고 말하고 친구에게는 실력 때문이라고 하는 일관된 외귀인보다 높은 평가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었으며, 이 경향은 실패한 경우 더욱 두드러졌다. 반면 실패시의 비일관된 내귀인은 낮은 평가, 성공시의 비일관된 내귀인은 높은 평가와 관련되어 있었다. 이 결과는 전체적으로 볼 때 사회적으로 기대되지 않는 비규범적인 귀인으로부터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규범적 귀인(즉, 역-자기기여적 귀인)으로 전환할 때 높은 평가를 받게 됨을 시사한다. 또한 이와 반대방향으로의 전환은 낮은 평가를 유발함을 보여준다. 그러나 성공시 비일관된 외귀, 즉 대개의 사람들에게는 운이라 하나 절친한 친구에게는 실력이라고 말하는 경우는 예외인데 이는 다수의 사람들에게는 규범적 귀인을 하고 친구에게는 솔직한 사람, 즉 사회적으로 가장 바람직한 양식의 행동을 하는 사람으로 평가된 것 같다. 이상의 결과는 비일관된 귀인이 항상 부정직한 행동으로의 평가를 유발하는 것은 결코 아님을 보여 줄 뿐만 아니라 경우에 따라서는 높은 평가를 유발하고 또 사회적으로 기대되는 행동임을 시사해 준다.

실험 II : 외적 결정과제의 집단수행

집단수행에서도 과제수행 결과가 성공적일 때는 자신의 공헌을 크게 지각하는 경향이 있는데(Ross & Sicoly, 1979; Thompson & Kelley, 1981), 이러한 경향을 자아중심적 편기(egocentric bias)라 한다. 본 실험의 목적은 자아중심적 편기, 즉 성공은 자신에게 내귀인하고 실패는 동료에게 외귀인하는 집단수행에서의 자기기여적 귀인이 관찰자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는가를 알아보고자 하는데 있다.

본 실험의 설계는 기본적으로 실험 I 과 동일하다. 중요한 차이점은 과제를 교내탁구대회 복식 결승전으로 했으며 이는 단식보다 더욱 외적으로 결정되는 과제라 볼 수 있다(주 1 참조). 또 하나의 차이점은 내-외귀인의 소재를 자신과 동료를 했다는 점이다. 이러한 설계상의 변화는 실험 I 의 가설에 약간의 변화 및 추가를 요구한다. 첫째, 귀인소재가 실력-운이 아닌 귀인자-동료이므로 이때의 자기기여적 귀인은 더욱 부적인 평가를 유발할 것으로 기대된다. 둘째, 귀인방향의 비일관성은 자신에서 동료로, 동료에서 자신으로 변화하므로

겸손성, 정직성, 호감도의 측면에서 극단적인 평가를 유발할 것으로 예상된다.

방 법

설계 독립변인의 조작과 설계는 실험 I 과 동일하다.

피험자 하계방학 중 영어특강을 수강하는 대학생 192명(남자 98명, 여자 94명)

재료 및 절차 교내탁구대회 복식결승전을 수행과제로 하고 수행정보 및 귀인정보의 네가지 독립변인을 조작하여 자극인물을 만들었다. 자극인물의 종류는 실험 I 과 마찬가지로 16가지가 되는데, 접전을 이룬 수행과정에서 실패를 한 다음 비일관된 외귀를 하는 자극인물의 예를 들면 그에 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A 는 교내탁구대회 복식 결승전에서 상대팀과 치열한 접전 끝에 아깝게 패배했다(세트 스코어 3 : 2). A 는 경기가 끝난 후 대부분의 사람에게는 패배의 원인을 자신보다도 파트너가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지만 절친한 친구인 B에게는 자신이 못했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이외의 모든 재료 및 절차는 실험 I 과 동일하다.

결 과

종속측정치간의 상관 <표 2>에 제시되어 있는 바와 같이 종속측정치간의 상관은 모두 .001 수준에서 의의가 있었으며 실험 I 과 거의 일치하는 결과를 보였다. 이 6 개의 상관계수들을 실험 I 의 동일한 차원간의 상관계수와 비교한 바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하나도 없었다. 중다회귀분석결과도 거의 동일하여 제시하지 않는다.

<표 2> 종속측정치간의 상관

측 정 치	겸 손 성	정 직 성	호 감 도
과 제 능 력	.469***	.542***	.550***
겸 손 성		.571***	.645***
정 직 성			.658***

*** $p < .001 (df = 190)$

호감도와 다른 변인들간의 상관을 보면 겸손성($r = .645$)과 정직성($r = .658$)은 과제능력($r = .550$)보다 유의하게 큰($p < .05$; 일방검증) 상관이 있었다. 또한 과제능력과 다른 종속치들간의 통합상관계수는 .521, 겸손성 · 정직성 · 호

감도간의 통합상관계수는 .628로 둘 간에 유의한 차이($Z=2.109, p<.05$)가 있었다. 이상의 결과는 실험 I의 결과와 일치한다.

과제능력의 평가 과제능력을 4 원변량분석한 결과 수행과정의 주효과($F_{(1,176)} = 6.815, p<.01; \epsilon^2 = 3.34\%$), 귀인일관성의 주효과($F_{(1,176)} = 4.074, p<.05; \epsilon^2 = 2.00\%$), 수행결과 \times 귀인방향의 상호작용효과($F_{(1,176)} = 9.915, p<.01; \epsilon^2 = 4.85\%$)가 나타났으며, 독립변인 전체의 설명변량은 13.81%이었다. 수행결과 \times 귀인방향의 상호작용효과는 기대했던 바와 같이 성공-내귀인($M=4.90$), 실패-외귀인($M=4.44$)의 자기기여적인 귀인은 낮은 평가, 성공-외귀인($M=5.98$), 실패-내귀인($M=5.79$)의 역-자기기여적인 귀인은 높은 평가와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수행과정의 주효과가 나타났다는 점은 특히 주목할 만하다. 실험 I에서는 수행결과의 주효과가 있었으나 본 실험에서는 나타나지 않았고 그 대신 수행과정의 효과가 나타났다. 더구나 기대와는 달리 접전일 때($M=5.78$) 일방적인 경우($M=4.77$)보다 더 높은 평가를 받았으며 접전 후의 실패($M=5.60$)일 때가 일방적 성공($M=4.92$)보다 더 과제능력이 높은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결과는 주로 두가지 측면에서 설명 가능하다. 첫째, 수행결과의 원인귀속이 용이하지 않은데서 비롯된 것으로 판단된다. 즉 수행결과에 관계없이 그 결과가 귀인자 때문인지 아니면 귀인자의 동료 때문인지를 제시된 내용만으로는 피험자가 판단하기 곤란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러한 원인귀속의 모호성은 과제능력의 평가를 척도상의 중앙에 집중하게 할 가능성이 있다. 또 하나의 보다 직접적인 원인은 "치열한 접전"이라는 단어가 함축하고 있는 의미 때문으로 보인다. 이 단어는 피험자가 지각하는 과제의 난이도를 높여 줄 가능성이 있으므로 이는 성공적일 때는 더욱 높은 평가를 유발하고 실패하더라도 낮은 평가를 유발하지 않게 될 것으로 예상된다. 또한 귀인자(및 동료)가 최선을 다했다는 인상을 줄 수 있다. 이러한 가능성이 복합적으로 작용해 "접전"에 대한 높은 평가가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일관성의 주효과는 일관된 귀인($M=5.67$)이 비일관된 귀인($M=4.89$)보다 높은 평가받았음을 보여준다. 이 역시 실험 I에서는 나타나지 않은 효과인데 이는 접전의 경우와 마찬가지로 귀인소재의 애매성 때문에 나타난 것으로 판단된다.

겸손성의 평가 수행결과와 귀인방향의 상호작용효과 ($F_{(1,176)} = 79.303, p<.001; \epsilon^2 = 28.28\%$), 수행결과 \times 귀인방향 \times 귀인일관성의 상호작용효과($F_{(1,176)} = 15.092, p<.001; \epsilon^2 = 5.38\%$)가 나타났으며 전체적으로 실험 I과 유사하다. 수행결과와 귀인방향의 상호작용 효과는 특히 강해 4개 독립변인이 설명해 주는 변량($\epsilon^2=37.25\%$)의 3/4 정도를 이 단일효과가 차지했다. 그 결과는 기대했던 바와 같이 성공을 내귀인($M=2.56$) 하고 실패는 외귀인($M=$

3.27)하는 자기기여적 귀인은 겸손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었고, 성공을 외귀인($M=6.08$)하고 실패는 내귀인($M=5.96$)하는 역-자기기여적 귀인은 이와 반대였다. 또한 본 실험에서의 자기기여적 귀인($M=2.92$)은 실험 I의 자기기여적 귀인($M=4.08$)보다 더 낮은 평가를 유발했다.

수행결과×귀인일관성×귀인방향의 상호작용효과는 성공일 경우 더욱 극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성공시 그 공을 동료에 돌리는 일관된 외귀인은 최고의 겸손성 평가($M=7.21$)를 받았으나 자신에게 귀속시키는 일관된 내귀는 최악의 평가($M=1.96$)를 유발했다. 비일관된 귀인은 실험 I과 다소 다른 결과를 나타냈는데 성공의 원인을 동료로부터 나 자신에게 돌리는 행동은 낮은 평가($M=4.96$)를 유발했고, 귀인자 자신에서 동료로 돌리는 행동은 그리 높은 평가($M=3.17$)를 유발하지 못했다. 이 결과는 대인귀인 상황에서의 비일관성은 겸손성 평가에 별 도움이 되지 않음을 보여준다.

정직성의 평가 수행결과와 귀인방향의 상호작용효과($F_{(1,176)} = 11.376, p < .001; \epsilon^2 = 5.48\%$) 및 수행결과($F_{(1,176)} = 4.966, p < .05; \epsilon^2 = 2.39\%$), 수행과정($F_{(1,176)} = 5.238, p < .05; \epsilon^2 = 2.52\%$), 귀인일관성($F = 6.098, p < .05; \epsilon^2 = 2.94\%$)의 주효과가 나타났으며 전체변량의 15.22%가 독립변인에 의해 설명 가능했다. 실험 I에서는 귀인방향만이 유의미한 주효과로 나타난 것을 고려하면 정직성의 평가는 이 두 종류의 과제 및 귀인소재에서 상당히 다른 양식으로 이루어짐을 알 수 있다. 상호작용 효과는 자기기여적 귀인, 즉 성공의 내귀인($M=4.54$) 및 실패의 외귀인($M=3.48$)에 대한 낮은 평가와 역-자기기여적 귀인, 성공의 외귀인($M=5.42$)과 실패의 내귀인($M=4.94$)에 대한 높은 평가에 의해 나타났다. 그러나 내귀인의 경우 성공-실패간에 거의 차이가 없어 이 효과는 주로 어떤 경우에 외귀인이 이루어졌는가에 의해 좌우되는 것으로 보인다. 특히 실패의 원인이 동료에게 있다는 귀인은 부정직하다는 평가를 받았다.

수행결과의 주효과는 실패($M=4.21$)보다는 성공($M=4.98$)했을 경우의 높은 평가, 수행과정에서의 주효과는 일방적($M=4.20$)보다는 점전적($M=4.99$)일 경우의 높은 평가, 귀인일관성의 주효과는 비일관적($M=4.17$)일 때 보다는 일관적($M=5.02$)일 때의 높은 평가에 의한 것이다. 이 결과는 본 실험의 집단수행이라는 상황이 개인수행보다 원인귀속의 소재가 모호하므로 상대적으로 수행정보(결과 및 과정)가 중요해지고, 귀인대상이 귀인자-동료 상황이어서 일관성이 중요한 정보가 되었기 때문으로 보인다.

호감도의 평가 수행결과와 귀인방향의 상호작용 효과가 두드러졌다($F_{(1,176)} = 48.180, p < .001; \epsilon^2 = 19.84\%$). 자기기여적 귀인, 즉 성공의 내귀인($M=2.88$)과 실패의 외귀인($M=2.90$)은 부적 평가를 받았고 역-자기기여적 귀인인 성

공의 외귀인($M=5.69$)과 실패의 내귀인($M=5.38$)은 호감도에서 높은 평가를 받았다.

수행결과×귀인방향×귀인일관성의 3원 상호작용 효과도 유의했는데($F_{(1,176)} = 7.172, p < .01; \epsilon^2 = 2.95\%$), 이는 자기기여적 귀인($M=2.73$)으로부터 역-자기기여적 귀인으로의 전환($M=3.04$)은 높은 평가를 유발하지 못한 반면, 역-자기기여적 귀인($M=6.40$)으로부터 자기기여적 귀인으로의 전환($M=4.67$)은 낮은 평가를 유발한데서 비롯된 것이다. 이 결과들은 실험 I의 결과보다 더 극단적인데 그 원인은 본 실험의 귀인이 귀인자-동료를 대상으로 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논 의

본 실험의 결과는 대체로 실험 I의 결과와 일치하며 전체적으로 가설을 지지해 주었다. 실험 I과의 차이점 중 특기할 만한 것은 수행결과×귀인방향의 상호작용 효과가 4개 종속차원 모두에서 유의했으며(실험 I은 과제능력에서는 나타나지 않았음) 동시에 가장 변산을 잘 설명해 주는(실험 I에서는 점수성과 호감성에서만) 변산원이었다는 점이다. 또한 귀인일관성의 효과도 주목할 만 한데 이는 주효과 또는 상호작용 효과의 일부로써 모든 종속측정치들을 유의하게 설명해 주었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가장 주된 원인은 귀인의 소재가 귀인자 또는 동료였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이를 좀 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자기기여적 귀인은 기대했던 바와 같이 부정 평가를 유발했고, 실험 I보다 더 부정이었으며 귀인의 비일관성도 실험 I에서는 정적 평가를 유발하는 경향이 있었으나 본 실험에서는 전체적으로 부정 평가를 유발했다. 이는 본 실험의 귀인소재가 귀인자-동료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이다. 즉 성공-자신, 실패-동료의 자기기여적 귀인은 사회적 맥락에서 극히 부정적 행동임은 부인할 수 없다. 또한 자신 및 동료에 대해서 비일관된 귀인을 하는 것 역시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임은 자명하다. 즉, 자기기여적 귀인은 성공일 경우에는 공을 독차지하고 실패일 경우에는 책임을 회피하는 이기적 행동으로 판단되고, 비일관된 귀인은 상황에 따라 동료를 다르게 평가하는 비도덕적인 행위로 판단되었다고 추론할 수 있다.

실험 III : 내적 결정과제(평균평점)

대인평가에서 외적인 결정과제일 때는 수행정보 보다는 귀인정보가 중요할

것으로 기대되는 반면 내적 결정과제일 때는 관찰자가 지각하는 원인이 비교적 분명하므로 수행정보가 더 중요할 것임을 지적한 바 있다. 본 실험은 내적 결정과제를 택하고 실험 I, II와 유사한 설계 및 절차를 사용하여 전술한 가설을 검증하고자 하였다.

본 실험의 수행과제로 대학에서의 평균평점을 택하였으며, 독립변인으로는 수행결과, 귀인방향, 귀인일관성을 택하였고 종속측정치는 앞의 실험과 동일하다. 이 실험에서의 가설을 구체화하면 다음과 같다. 먼저 앞의 실험과 달리 수행결과가 네 종속차원에서의 평가에 큰 영향을 줄 것으로 기대된다. 상대적으로 귀인정보(내-외귀인 및 일관성)는 피험자 자신이 지각하는 원인이 있으므로 덜 중요할 것이다. 따라서 종속차원간의 상관은 대체로 낮을 것으로 예상되며, 호감도는 수행결과와 밀접한 관계가 있을 것이다. 귀인소재의 명확성 및 수행결과의 중요성은 방어적 귀인의 효과를 덜 부적으로 하게 될 것으로 예상되며, 귀인일관성의 효과는 정직성의 평가에 큰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된다.

방 법

설계 수행결과(성공-실패), 귀인방향(내귀인-외귀인), 귀인일관성(일관-비일관)의 조건들을 조합하여 $2 \times 2 \times 2$ 피험자간 요인설계가 이루어졌다.

피험자 하계방학 중 영어특강을 수강하는 대학생 96명(남자 49명, 여자 47명) 재료 및 절차 A라는 자극인물의 학점을 수행과제로 하였으며 3개 독립변인 각각의 두 수준을 조합하여 8종류($2 \times 2 \times 2$)의 자극인물을 만들었다. 3개 독립변인의 각 수준을 살펴보면 수행결과 중 성공은 평균평점 “4.0”, 실패는 “2.0”이며 귀인방향 중 내귀인은 “능력”, 외귀인은 “운”이며 귀인일관성 중 일관된 귀인은 “모두 사람에게”, 비일관된 귀인은 “대개의 사람에게는… 절친한 친구에게는…”으로 되어 있다. 독립변인의 조합이 수행결과는 성공적이고 비일관된 내귀인 경우 자극인물에 대한 기술은 다음과 같이 이루어졌다.

“A의 지금까지의 평균평점은 4.0 수준이다. A는 대부분의 사람에게 이 성적을 자신의 능력의 결과라고 말하지만 절친한 친구 B에게는 운이라고 말했다.”

종속변인 중 과제능력 평가는 앞의 실험과 중요한 차이가 있다. 그것은 “이 사람은 얼마나 유능한 또는 무능한 사람인가”로 직접적인 방식으로 물어 실험 I, II와는 달리 소망적 기대가 혼입되어 있지 않은 순수한 과제능력이라고 할 수 있다는 점이다. 자극인물에 대한 8종류의 기술은 96명의 피험자에게 무

선적으로 할당되었다. 그 밖의 절차는 앞의 두 실험과 근본적으로 동일하다.

결 과

종속측정치간의 상관 종속측정치간의 상관계수(표 3)는 호감도와 정직성은 다른 변인들과 유의한 상관이 있는 것으로 나타났으나 겸손성과 과제능력 간에는 유의한 상관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호감도를 기준변인으로 하고 다른 세 종속측정치를 예언변인으로 하여 단계적 중다회귀분석을 했다. 그 결과 예언력의 크기는 과제능력($\beta = .408, F_{(1, 92)} = 34.460, p < .001$), 겸손성($\beta = .260, F_{(1, 92)} = 14.165, p < .001$), 정직성($\beta = .210, F_{(1, 92)} = 8.632, p < .01$)의 순으로 나타나 과제능력이 호감도 평가에 중요할 것이라는 기대와 일치하였다.

〈표 3〉 종속측정치간의 상관

측 정 치	겸 손 성	정 직 성	호 감 도
과 제 능 력	.126	.280**	.499***
겸 손 성		.260*	.365***
정 직 성			.371***

* $p < .05$

** $p < .01$

*** $p < .001$

〈표 3〉에 제시된 결과를 종속측정치간의 상관이 상대적으로 낮은 실험 I의 결과와 비교하면 겸손성과 정직성간의 상관계수는 $p < .001$ 수준($Z = 3.347$)에서, 과제능력과 겸손성 그리고 호감도와 겸손성간의 상관은 $p < .01$ 수준(각각 $Z = 3.276, 3.071$)에서, 호감도와 정직성간의 상관은 $p < .05$ 수준($Z = 2.290$)에서 유의하게 낮았다. 이 결과는 전체적으로 종속변인들간의 상관계수가 낮을 것이라는 가설과 일치한다. 또한 과제능력이 겸손성이나 정직성과 유의한 차이가 있는 것은 아니지만 호감도와 상대적으로 큰 상관을 나타내 수행정보가 중요할 것이라는 기대와도 일치한다. 특기할 만한 사항은 겸손성과 과제능력간에 의미있는 상관이 없다는 점이다. 이러한 결과가 나타난 원인은 크게 두 가지로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본 실험의 과제능력평가는 앞의 실험과 달리 순수한 능력을 측정했다. 따라서 여기에서의 과제능력은 순수한 개인적 특성인 반면 겸손성은 대인관계 맥락에서 중요한 의미를 갖는 사회적 특성이기 때문에 두 차원의 평가는 서로 독립적이라고 할 수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사용된 과제의 특성 때문으로 판단된다. 외적으로 결정되는 경쟁적인 시험에서의 승패에 대한 귀인은 자신

의 능력은 물론 상대방의 능력에 대한 평가의 의미를 함축하고 있으나 학점에는 그러한 요소가 없다. 이러한 과제특성상의 차이가 상관에서의 차이로 이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과제능력의 평가 과제능력의 평가점수를 3원변량분석한 바 수행결과의 주효과($F_{(1,88)} = 220.028, p < .001$)만이 나타났는데 수행결과가 성공($M = 6.48$)일 때 실패($M = 4.11$)한 경우보다 유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수행결과는 전체변량의 $1/4$ ($\epsilon^2 = 25.50$)을 설명해 주어 본 실험의 과제능력은 수행결과의 함수로 변화함을 알 수 있다. 반면 귀인방향의 주효과 및 귀인일관성의 주효과, 수행결과와 귀인방향의 상호작용 효과도 없었다. 이는 귀인정보는 능력평가에 그리 중요하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며, 자기기여적 귀인도 낮은 평가와 연관되어 있지 않음을 보여 주는 것이라 하겠다.

이러한 결과는 본 실험의 과제가 내적으로 결정되는 것이며, 일회적이 아니라 지속적인 수행의 평가라는 점, 그리고 수행결과가 극단적(평균평점 4.0 이상이거나 2.0 이하인 학생은 전체의 10% 미만으로 추정됨)이라는 점에서 설명 가능하다.

겸손성의 평가 수행결과×귀인방향의 상호작용효과($F_{(1,88)} = 8.267, p < .01; \epsilon^2 = 7.87\%$)와 수행결과×귀인방향×귀인일관성의 3원 상호작용효과($F_{(1,88)} = 7.721, p < .01; \epsilon^2 = 7.35\%$)가 나타났으며, 전체적인 설명변량은 17.41%였다. 성공을 내귀인($M = 4.25$)하고 실패는 외귀인($M = 4.00$)하는 자기기여적 귀인은 성공을 외귀인($M = 5.59$)하고 실패는 내귀인($M = 5.13$)하는 역-자기기여적 귀인보다 겸손하지 못한 것으로 나타났다. 그러나 이 효과는 실험 I과 실험 II에서 이 변산원이 갖는 효과(ϵ^2 는 각각 18.16%, 28.28%)에 비해 작다. 이는 본 실험의 가설을 지지해 주는 것이며, 주된 이유는 내적 결정과제이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수행결과×귀인방향×귀인일관성의 효과의 양식은 실험 I, II와 유사하나 훨씬 덜 극단적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내적으로 결정되며 동시에 타인에 대한 평가를 함축하고 있지 않다는 본 실험 과제의 특성 및 귀인소재의 상대적 명료성에 그 원인이 있는 것으로 보인다.

정직성의 평가 세 독립변인은 정직성 평가에 아무런 영향도 미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실험전의 기대는 관찰자가 지각하는 귀인소재가 비교적 명료하므로 관찰자가 지각하는 원인이 행위자의 귀인과 일치하지 않으면 부정직한 것으로 판단될 것이며, 이런 상황에서의 비일관된 귀인은 더욱 부정직하다는 평가를 유발하게 될 것이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결과는 실험전의 기대와는 다르게 나타났다. 현재로서는 이 결과에 대한 설득력있는 설명은 어려우나 몇가지 가능성을 생각해 볼 수 있다.

먼저 정직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서 내적 결정과제일 때는 관찰자가 귀인자의 주장을 그대로 받아들이기 때문이라고 볼 수 있다. 그러나 본 실험에서의 정직성 평가의 전체 피험자의 평균($M=5.53$)은 복식의 경우($M=4.59$)보다 높으나 단식의 경우($M=5.63$)와는 차이가 없기 때문에 타당한 설명으로 보기 어렵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본 실험의 과제가 실험 I, II와는 달리 피험자 자신의 문제로 받아들여졌을 가능성이 있다는 점이다. 거의 전 피험자가 교내탁구대회에 출전하거나 결승까지 진출할 가능성을 갖고 있지 않으며, 그런 사람을 절친한 친구로 사귀고 있을 가능성 또한 희박하다. 따라서 실험 I, II에서의 평가는 피험자 자신과는 유리된 문제일 수 있다. 그러나 학점은 모든 피험자의 관심사항이고, 피험자들이 자신의 학점에 대해서 어떤 양식으로든 귀인한 경험이 있거나 하고 있을 것이다. 따라서 본 실험에서의 평가는 자아관여되어 있을 수 있다. 또한 자극인물의 기술에서 피험자의 자아관여도를 높이기 위해 특정기간 동안의 평균평점이라고 기술하지 않고 “지금까지의 평균평점”이라고 했다. 이상의 특성들은 피험자들로 하여금 자신의 현재의 평균평점 및 그것에 대한 자신의 귀인에 주목하게 하고 이는 다시 귀인자의 정직성 평가에 영향을 주었을 가능성이 있다.

호감도 평가 호감도를 변량분석한 바 수행결과와 주효과($F_{(1,88)} = 105.063$, $p < .001$; $\epsilon^2 = 15.23$)만이 나타났으며 실패($M=3.80$)보다 성공일 때($M=5.61$) 더욱 호감가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종속변인들간의 상관계수에 대한 검토부터 예견되었던 것으로 내적 결정과제에서는 수행정보보다 귀인정보보다 호감도 평가에 더욱 중요할 것이라는 기대와 일치한다.

논 의

본 실험에서 사용된 과제는 내적으로 결정되며, 지속적인 수행의 결과이며, 타인에 대한 평가를 함축하지 않고 있다는 점에서 앞의 실험들과 다르다. 또한 수행결과(평균평점 4.0 또는 2.0)도 승리-패배보다는 다소 극단적이라 할 수 있다. 이상의 차이점은 피험자가 지각하는 귀인소재가 명확하다는 특징과 연결되는데, 이를 근거로 설정한 가설들은 대체로 지지되었다. 즉 종속치 간의 상관은 대체로 낮았고, 과제능력이 호감도와 밀접한 관계를 갖고 있었으며 이 두 차원은 수행정보만의 효과로 나타났다. 이 결과는 피험자들이 수행정보에 과도집중하고 귀인정보는 대체로 무시할 것이라는 당초의 기대와 일치한다. 예언과 일치하지 않는 의외의 결과도 있었는데 이는 정직성 평가에서 나타났다. 정직성 평가는 귀인방향, 귀인일관성은 물론 수행결과와 세 독립변인에 의해 유의하게 설명되지 않았다. 이 결과는 귀인자 평가에 피험자의 경험

및 관여가 개입되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잠정적 설명 이상은 현재로서는 불가능하다.

실험Ⅳ : 내적 결정과제(모의학력고사)

본 실험에서는 피험자를 고등학생으로 하고, 내적으로 결정되는 수행과제로는 모의학력고사를 택하여 수행정보 및 귀인정보가 귀인자에 대한 관찰자의 평가에 어떤 영향을 미치는가를 확인해 보고자 하였다.

본 실험에서는 고3 학생들의 지금까지의 내신성적을 기준능력정보로 제시하고 이와 비교한 모의학력고사 성적을 수행으로, 운과 노력을 귀인소재로 하였다. 기대되는 결과는 전체적으로 실험Ⅲ과 동일하다. 그러나 이러한 상황은 앞의 실험들과 몇 가지 측면에서 상이하다. 가장 중요한 것은 그 어느 과제보다도 자아관여도(ego involvement)가 크다는 점이다. 현재의 대학입학은 거의 전적으로 학력고사성적에 의존하고 모의학력고사는 고3 학생에게 극히 중요한 과제임은 부정할 수 없다. 또한 이 과제에서의 성공과 실패는 부적으로 상호의존된 목표(negative goals interdependence)라 할 수 있다. 즉, 대부분의 고3 학생들의 경우 타인의 성공은 자신의 실패 또는 최소한 미래 수행에의 위협이 될 수 있는 점을 기억해 둘 필요가 있다.

방 법

피험자 광주시 소재 인문계 남자 고등학교 3학년 288명

설계 고등학교 3학년까지의 내신성적(4등급, 8등급, 12등급)을 기준능력정보로 주고 모의학력고사를 수행과제로 하였다. 모의학력고사에서의 성공은 기준능력정보보다 2등급 상승한 것이고 실패는 2등급 떨어진 것으로 했다. 내귀인은 노력으로 했고 외귀인은 운으로 해 $3(\text{기준능력}) \times 2(\text{수행결과}) \times 2(\text{내-외귀인})$ 의 피험자간 요인 설계가 이루어졌다.

재료 및 절차 독립변인들의 각 수준을 결합하여 12개의 자극인물을 만들었다. 평소 성적이 '중'이고 수행결과는 실패이며 내귀인을 한 경우를 예로 들면 이때 자극인물에 대한 기술은 다음과 같다.

“A의 지금까지의 성적은 내신 8등급이다. A는 모의학력고사에서 예상보다 나쁜 10등급에 해당되는 점수를 받았다. A는 친구들에게 이 성적은 노력하지 않았기 때문이라고 말했다.”

기타 절차 및 종속변인은 앞의 실험들과 동일하다.

종속측정치간의 상관 기대와는 달리 종속측정치간에 큰 상관이 있으며(모두 $p < .001$) 이 결과는 실험Ⅲ보다는 실험Ⅰ, Ⅱ와 더 가깝다. 실험Ⅲ의 결과와 비교하면 능력과 점손성간의 상관계수 및 점손성과 정직성간의 상관계수는 $p < .001$ 수준(각각 $Z=3.870, 3.485$)에서, 점손성과 호감도간의 상관계수는 $p < .01$ 수준($Z=2.781$)에서 본 실험의 결과가 높다. 이러한 의외의 결과가 나타난 것은 각 종속측정치의 평가가 어떤 독립변인의 함수로 이루어졌는가 밝혀져야 가능할 것이다.

〈표 4〉 종속측정치간의 상관

측 정 치	점 손 성	정 직 성	호 감 도
과 제 능 력	.529***	.408***	.519***
점 손 성		.593***	.614***
정 직 성			.537***

*** $p < .001$ ($df=286$)

과제능력의 평가 과제능력의 평가는 5개의 주효과 및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설명되었는데 이를 설명변량이 큰 순서대로 정리하면 수행결과의 주효과 ($F_{(1,276)}=70.101, p < .001$; $\epsilon^2=16.91\%$)가 가장 두드러지며, 그 다음은 평소성적 ($F_{(2,276)}=17.046$; $p < .001$; $\epsilon^2=8.22\%$), 수행결과×귀인($F_{(1,276)}=10.337, p < .001$; $\epsilon^2=2.49\%$), 평소성적×수행결과×귀인($F_{(2,276)}=12.599, p < .01$; $\epsilon^2=2.42\%$), 귀인방향($F_{(1,276)}=8.170, p < .01$; $\epsilon^2=1.97\%$)의 순이다. 이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성적이 하락했을 때보다 향상($M=6.91$)했을 때 유능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며, 이 효과가 전체 설명변량($\epsilon^2=33.43\%$)의 1/2을 차지했다. 평소성적이 ‘상(4등급)’, ‘중(8등급)’, ‘하(12등급)’인가에 따라 차이가 있어 높은 성적일수록 유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평균은 각각 6.68, 6.09, 5.03). 수행결과와 귀인방향의 상호작용효과는 성공을 외귀인 했을 때의 높은 평가($M=6.94$), 실패를 외귀인 했을 때의 낮은 평가($M=4.25$) 경향 때문이다. 그러나 이 상호작용효과에는 평소성적이 크게 개입되어 있는 바 자기기여적 귀인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는 평소성적 ‘상’이며 실패에 대하여 외귀인 하는 자극인물 ($M=4.71$)에 대한 평가에서 두드러지며, 평소성적이 ‘중’ 또는 ‘하’인 경우에는 귀인방향의 효과는 미미한(내귀인; $M=5.86$, 외귀인; $M=5.27$) 반면 수행결과의 효과(성공; $M=6.70$, 실패; $M=4.43$)가 두드러졌다. 전체적으로는 내귀인($M=6.28$)할 경우 외귀인($M=5.59$)할 때보다 유능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겸손성의 평가 수행결과의 주효과($F_{(1,276)} = 38.866, p < .001; \epsilon^2 = 10.64\%$) 및 수행결과×귀인방향($F_{(1,276)} = 44.603, p < .001; \epsilon^2 = 12.22\%$)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다. 즉, 실패한 경우($M=4.36$)보다는 성공한 경우($M=6.11$) 더욱 겸손한 것으로 평가되었으나 이는 귀인방향에 따라 다른 효과를 지닌 것으로 나타났다.

내귀인 했을 때의 겸손성 평가는 성공($M=5.11$)인가 실패($M=5.22$)인가에 따른 차이가 없으나 실패의 외귀인($M=3.50$)은 겸손치 못한 것으로, 성공의 외귀인($M=7.14$)은 겸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는 피험자들에게 내적 결정과정의 내귀인은 당연한 것으로 받아들여져 중립적인 반응을 나타냈고, 성공의 외귀는 규범적 행동으로, 실패의 외귀는 책임의 회피로 받아들여져 극단적인 평가가 나타났다고 할 수 있다.

정직성의 평가 수행결과의 주효과($F_{(1,276)} = 11.787, p < .001; \epsilon^2 = 3.77\%$), 수행결과×귀인방향의 상호작용효과($F_{(1,276)} = 9.371, p < .01; \epsilon^2 = 3.00\%$), 평소성적의 주효과($F_{(2,276)} = 3.062, p < .05; \epsilon^2 = 1.96\%$)가 나타났으나 전체적인 설명변량은 작다. 실패($M=5.28$)보다는 성공($M=6.27$)했을 때 더 정직한 것으로 평가받았으며, 내귀인을 했을 때는 성공($M=6.10$)과 실패($M=5.99$) 간에 차이가 없으나 외귀인의 경우에는 성공($M=6.45$)일 때와 실패($M=4.57$) 간에 차이가 있었다. 이 평가경향은 전체적으로 겸손성평가와 유사하나 덜 극단적이다. 평소성적의 주효과는 예기치 않은 결과로 ‘중’($M=6.23$)일 때 가장 정직하고 그 다음은 ‘하’($M=5.73$), ‘상’($M=5.36$)의 순서였다. 이 효과는 그리 강력하지는 않으나 의외의 결과임에는 틀림없다. 이 결과는 수치상으로는 평소성적 ‘상’이며 실패하고 외귀인한 자극인물에 대한 극히 부적인 평가($M=3.46$)의 영향을 많이 받은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왜 이렇게 부적인 평가가 나왔는가를 설명하는 것은 현재로서는 매우 어렵다.

호감도의 평가 수행결과의 주효과($F_{(1,276)} = 17.089, p < .001; \epsilon^2 = 5.40\%$)가 두드러지나, 수행결과×귀인방향의 상호작용효과($F_{(1,276)} = 6.432, p < .01; \epsilon^2 = 2.03$)와 귀인방향의 주효과($F_{(1,276)} = 5.344, p < .05; \epsilon^2 = 1.69\%$)도 있었다. 수행결과가 실패($M=4.69$)인 자극인물보다는 성공($M=5.91$)한 자극인물이 선호되었으며, 내귀인일 경우 성공($M=5.88$)과 실패($M=5.40$)간에는 차이가 없었으나 성공의 외귀인은 높게 평가되고($M=5.94$), 실패의 외귀인은 낮게 평가($M=3.97$)되었다. 이러한 평가경향은 다소간의 차이는 있으나 과제능력 및 겸손성, 정직성의 평가에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이다.

네개 종속차원상의 평가에 대한 변량분석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난 현상은 수행결과와 영향력이 두드러진다는 점이다. 수행결과는 네개의 분석모두에서 설명변량이 가장 또는 두번째로 큰 변산원이었다. 이는 본 실험의 피험자들에게는 과제의 성공적 수행, 즉, 성적의 향상이 그만큼 중요함을 암시하며 종속변인간의 높은 상관도 이로부터 비롯되었음을 추론할 수 있다.

또 하나의 중요한 발견사항은 본 실험과 같은 과제, 즉 피험자의 자아관여도가 높고 내적으로 결정되며 목표가 부적 상호의존적이라는 특성을 지닌 과제에서는 귀인의 효과가 귀인방향에 따라 다를 수 있다는 점이다. 네 종속차원 모두에서 유의한 수행결과와 귀인의 상호작용효과가 나타났는데, 일반적으로 내귀인한 자극인물에 대한 평가에서는 성공-실패간에 차이가 없었다. 그러나 실패의 외귀인은 모든 차원에서 가장 낮은 평가를 유발했다. 이 경향 역시 과제의 내적 결정성과 밀접한 관련을 갖는 것으로 보인다. 내적 결정과제의 내귀인은 자연스럽고 당연한 행동으로 평가되는 반면에, 성공의 외귀인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한 행동으로, 실패의 외귀인은 사회적으로 바람직하지 못한 행동으로 지각되었기 때문으로 판단된다.

종 합 논 의

본 연구는 과제의 결정소재, 수행결과, 수행과정 등의 수행정보와 귀인방향, 귀인일관성 등의 귀인정보가 귀인자를 관찰자가 과제능력, 겸손성, 정직성, 호감도의 측면에서 평가할 때 어떤 효과를 미치는가를 알아보는데 그 목적이 있었다. 이를 위해 독립변인들을 조합하여 만든 인위적인 자극인물을 피험자로 하여금 평가하게 하는 네 개의 실험을 했다. 이로부터 얻은 결과가 암시하는 바를 먼저 종속변인들의 순서대로 정리하고, 그 다음 본 연구에서 가장 중심적인 문제로 다루어진 자기기여적 귀인이 평가에 미치는 효과, 그리고 본 연구의 제한점 및 앞으로의 연구를 위한 제안의 순으로 논하고자 한다.

과제능력의 평가는 수행결과와 귀인방향의 상호작용 효과에 의해 결정되기보다는 수행결과와 영향력을 많이 받았다. 그러나 수행과제의 영향도 과제의 특성에 따라 좌우되었다. 내적결정과제를 사용한 실험Ⅲ과 실험Ⅳ에서는 성공한 자극인물이 더 유능한 것으로 평가되는 경향이 두드러졌으며 모든 독립변인의 조작의 효과도 큰 설명변량(30% 이상)을 갖고 있었다. 심지어 실험Ⅳ에서는 일회적 과제에서의 성공-실패가 지속적인 과제에서의 성공-실패(평

소 성적)보다도 더 영향력이 컸다. 이는 과제에 따라서는 행위자의 능력을 평가할 때 관찰자가 수행결과에 과도하게 주목할 수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외적 결정과제를 사용한 실험 I 과 실험 II에서는 이와 반대의 결과를 나타냈다. 즉 조작된 독립변인들은 전체 변량의 15% 이내만을 설명해 주었을 따름이며 수행결과의 주효과도 유의하지 않거나(실험 I) 미미했다(실험 II), 이 결과는 자기기여적 귀인이 귀인자에 대한 능력 평가를 극대화하려는 동기로부터 비롯된다는 설명(Weiner 등, 1971)은 우리의 상식적인 기대 및 행동과 일치하나 그 효과는 기대 이하일 것이라는 주장들(Jones & Harris, 1967; Jones & Nisbett, 1972; Stokol & Schopler, 1973; Wortman, 1975)을 뒷받침 해준다.

겸손성의 평가는 네개 실험 모두에서 수행결과와 귀인방향의 상호작용 효과로 나타났다. 즉 자기기여적 귀인은 겸손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된 반면 역-자기기여적 귀인은 겸손한 것으로 평가되었다. 이 경향은 수행과제가 외적으로 결정되는 것일 때 더 강하며, 내-외귀인의 소재가 자신-타인일 때 더욱 그러하다. 반면 내적으로 결정되고 수행결과가 극히 중요한 과제에서는(실험 IV) 성공을 내귀인해도 겸손치 못한 것으로 평가되지 않았다. 이상의 결과는 자기기여적 귀인은 능력평가보다는 겸손성의 평가와 관련되어 있으며 과제의 특성에 따라 다른 평가를 유발할 수 있다는 상식적 기대로부터 설정된 연구가설과 일치하는 결과라 하겠다.

정직성의 평가는 본 실험에서 사용된 독립변인들로 가장 잘 설명되지 않은 부분이었다. 특히 내적인 과제에서 더욱 두드러져 실험 III에서는 유의한 효과가 하나도 없었다. 또한 귀인일관성의 효과도 기대했던 만큼 의미있지는 못했다. 현재의 자료로는 명확한 이유를 제시할 수는 없으나 몇가지 가능성을 추론해 볼 수는 있다. 그 하나는 비일관된 귀인이 부정직한 행동으로 평가되기보다는 일반적이고 규범적인 행동으로 평가될 수 있다는 점이다. 즉 타인에게 겸손하게 또는 유능하게 보이기 위해서는 불가피한 행동이라고 피험자들이 판단했을 가능성이 있다. 이에 더해서 피험자들은 더욱 자기인식으로 되어 자신의 행동을 재검토하도록 동기화 되었을 수도 있다. 또 하나의 가능성은 귀인자의 정직성 평가는 귀인자가 어떤 의도를 갖고 있는가를 중심으로 해서 이루어질 수도 있다는 점이다. 즉 귀인이 일관 또는 비일관 되었는가 보다는 비일관 귀인의 이면에 자신이 부당한 이익을 얻거나 타인에게 피해를 주려는 불순한 동기가 있었는지의 여부가 정직성 평가와 관련되어 있을 수 있다. 이상의 가능성에 대한 체계적 접근이 요망된다.

호감도의 평가는 일차적으로 대상이 겸손한가 하지 않는가에 영향을 받는 것으로 보인다. 단계적 중다회귀분석들의 결과는 실험 III을 제외한 나머지 세 실

험에서 겸손성의 예언력이 가장 큰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호감도 평가와 겸손성 평가간에 밀접한 관계가 있음을 보여주는 것이다. 호감도의 평가는 겸손성 평가와 마찬가지로 과제특성과 관련되어 있는 것 같다. 독립변인을 조작한 효과는 내적 결정 과제보다는 외적 결정과제에서 더 컸으며 가장 영향력있는 조작도 외적 결정과제에서는 수행결과와 귀인방향의 상호작용 효과이었으나 내적 결정과제에서는 수행결과였다. 이는 내적 결정과제에서는 호감도가 수행결과와도 관련을 갖고 있음을 시사한다.

본 연구의 일차적인 목표는 자기기여적 귀인이 관찰자로부터 어떤 평가를 받게 되는가를 알아보는 데 있었다. 결과는 예상했던 바와 같이 겸손하지도, 정직하지도 않고 호감이 가지도 않는다는 평가를 유발했으며, 동시에 유능하게 평가되지도 않았다. 반대로 성공을 외귀인하고 실패는 내귀인하는 역-자기기여적인 귀인이 정적 평가를 유발했다. 이는 자기기여적인 귀인이 자존심(self-esteem)의 고양 및 유지에는 효과적일지 모르나 타인의 평가(public esteem)라는 측면에서는 역기능적임을 시사한다. 이 결과는 많은 사회심리학자들에게 보편적인 현상처럼 받아들여져 온 자기기여적 귀인경향에 대한 재검토가 필요함을 암시한다. 귀인에 대한 대부분의 실험사회심리학적 연구들은 자기기여적 귀인경향을 보고해 왔고, 귀인 이론가들은 이 경향을 보편적인 현상으로 보는 한편 이 경향의 밑바탕에 있는 귀인과정을 설명하려 노력해 왔다. 그러나 자기기여적인 귀인 현상이 귀인자 자신의 지각적인 측면에서는 보편적일지도 모르나 최소한 타인에게 공개하는 측면에서는 그리 일반적 현상이 아닐 수도 있다. Heider는 상식(common sense)을 귀인과정의 기술 및 이를 설명하기 위한 심리학 이론을 세우는데 중요한 원천으로 간주했는데(Ross 등, 1985), 우리의 상식적인 견해는 대개의 경우 성공의 원인이 능력이나 노력과 같이 우리 내부에 있더라도 그렇게 말(보고)하지 않아야 한다는 것이다. 좀더 구체적으로 설명하면 “잘되면 저 잘난 탓이고, 잘못되면 조상 탓한다”는 속담은 원인귀속 때 나타나는 지각상의 편기(perceptual bias)를 기술하는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 즉 이 속담은 지각적 편기를 탓함과 동시에 자기기여적인 귀인은 하지 말아야 한다는 교훈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렇다면 실험사회심리학적 연구에서 거듭 나타난 인과 비대칭성(causal asymmetry), 즉 자기기여적 귀인 경향은 무엇으로 설명될 수 있는가? 이는 Bradly(1978)가 제안한 여러 원인 중 대부분의 실험에서 실험자(또는 관찰자)의 피험자(귀인자) 평가를 피험자가 중요한 것으로 판단했기 때문이라는 것으로 잘 설명될 수 있다고 판단된다. 이는 우리의 일상적인 판단 및 행동과 잘 일치한다. 우리는 일반적으로 타인에게 겸손하다는 인상을 주는, 또는 실수에 대해 책임을 지는 양식의 귀인을 선호한다. 그러나 타인의 평가가 극히 중요한 상황에서는 자기

기여적 귀인을 하고 또 하도록 조언하기도 한다. 예를 들면 입학이나 구직 등을 위한 면접에서 또는 결혼을 위해 맞선을 보는 상황 등에서 자기기여적인 귀인을 하지 않거나 하지 말라고 권유하는 사람은 드물 것이다. 그 이유는 관찰자가 내리는 귀인자의 개인적 특성, 즉 능력에 대한 평가가 귀인자의 사회적 특성, 즉 겸손성이나 호감도에 대한 평가보다 중요하기 때문이다. 동시에 자기기여적 귀인이 오만불손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유발하기보다는 자신만만하고 유능한 사람이라는 평가를 유발하고, 호감도도 증가시킬 것으로 기대되기 때문이다. 이상의 내용은 상식심리학(naive psychology)적인 측면에서의 잠정적 설명일 따름이며 체계적인 검증이 요구된다는 것은 논의할 필요조차 없다. 그러나 자기기여적 귀인경향 역시 실제보다 훨씬 더 보편적인 현상으로 과도하게 일반화되어 왔으며 기존의 결과 및 해석에 대한 철저한 재검토가 필요하다는 것 역시 부인하기 어렵다.

본 연구의 결과는 대체로 실험 전의 기대와 일치한다. 그러나 네개의 실험들이 처음부터 하나의 연구주제로 통합될 계획하에 체계적으로 진행되기 보다는 하나의 실험 결과를 보고 즉흥적으로 다음 실험계획을 세우는 방식으로 수행되었기 때문에 여러가지 제한점이 있다. 이 중 대표적인 것만을 예로 들면 첫째, 독립변인의 조작 및 정의, 종속변인의 측정이 체계적이지 못하여 실험 간의 비교가 어렵다는 점이다. 예를 들면 귀인방향은 실험 I에서는 실력-운, 실험 II에서는 자신-동료, 실험 III에서는 능력-운, 실험 IV에서는 노력-운으로 어느 한 실험도 동일하지 않다. 이는 다양한 조건들을 포함했다는 장점은 있으나 결과상의 차이를 설명하는 것은 매우 어렵게 한다. 또한 과제수행의 결정소재도 상대적인 비교에서 내적-외적 결정과제로의 구분이 가능할 따름이지 척도상의 절대적 평가의 측면에서는 모두가 내적 결정과제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거의 전적으로 또는 상당 부분이 외적으로 결정되는 과제(예를 들면 복권, 도박 등)에 대하여 까지 본 연구의 결과를 일반화를 할 수는 없다. 나아가 종속변인의 측정에서도 과제능력의 측정은 실험 I, II와 실험 III, IV가 다르다. 이 역시 분석 결과의 실험간 비교를 어렵게 한다. 둘째, 본 실험의 상황은(귀인자)와 귀인대상자의 상호작용을 피험자가 제 3자의 위치에서 관찰하는 것으로 되어 있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 나타난 피험자의 반응은 피험자들이 직접 관찰한 행동에 대한 평가라기 보다는 다른 사람이 행위자의 행동을 관찰하고 전달해 주는 정보를 근거로 한 제 3자에 대한 판단이라고 할 수 있다. 행위자와 관찰자간의 직접적인 상호작용 맥락을 포함하는 동시에 더욱 현실적인 요소를 갖는 연구들이 요청된다.

참 고 문 헌

- Beckman, L. (1973). Teachers' and observers' perceptions of causality for a child's performance. *Journal of Educational Psychology*, 65, 198-204.
- Bradley, G. W. (1978). Self-serving biases in the attribution process: A reexamination of the fact or fiction ques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56-71.
- Burger, J. M., & Rodman, J. L. (1983). Attributions of responsibility for group task: The egocentric bias and the actor-observer difference.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5, 1232-1242.
- Carlston, D. E., and Shovar, N. (1983). Effects of performance attributions on other' perceptions of the attributo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4, 515-525.
- Feather, N. T., & Simon, J. G. (1971). Attribution of responsibility and valence of outcome in relation to initial confidence and success and failure of self and other.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18, 173-188.
- Gill, D. L. (1980). Success-failure attributions in competitive groups: An exception to egocentrism. *Journal of Sport Psychology*, 2, 106-114.
- Jones, E. E., & Harris, V. A. (1967). The attribution of attitudes. *Journal of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3, 1-24.
- Jones, E. E., & Nisbett, R. E. (1972). The actor and the observer: Divergent perceptions of the causes of behavior. In E. E. Jones, D. E. Kanouse, H. H. Kelley, R. E. Nisbett, S. Valins, and B. Weiner (Eds.), *Attribution: Perceiving the causes of behavior*. Morristown, N. J.: General Learning Press.
- Miller, D. T. (1978). What constitutes a self-serving attributional bias? A reply to Bradley.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6, 1211-1223.
- Miller, D. T., & Ross, M. (1975). Self-serving biases in the attribution of causality: fact or fiction? *Psychological Bulletin*, 82, 213-225.
- Ross, L. (1977). The intuitive psychologist and his shortcomings: Distortions in the attribution process. In L. Berkowitz (Ed.), *Advances in experimental social psychology*. Vol. 10. New York: Academic Press.
- Ross, L., Bierbrauer, G., & Polly, S. (1974). Attribution of educational outcomes by professional and nonprofessional instructor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9, 609-618.
- Ross, M., & Fletcher, G. J. O. (1985). Attribution and Social Perception. In G. Lindzey, and E. Aronson (Eds.), *The handbook of social psychology* (3rd ed.). Vol. II. New York: Random House.
- Ross, M., & Sicoly, F. (1979). Egocentric biases in availability and attribu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7, 322-336.
- Scanlan, T. K. (1977). The effect of success-failure on the perception of threat in a competitive situation. *Research Quarterly*, 48, 144-153.

- Schlenker, B. R. (1975). Group member's attributions of responsibility for prior group performance. *Representative Research in Social Psychology*. 6, 69-108.
- Schlenker, B. R., & Miller, R. S. (1977). Group cohesiveness as a determinant of egocentric perceptions in cooperative groups. *Human Relations*. 30, 1039-1055.
- Schlenker, B. R., Soraci, S., & McCarthy, B. (1976). Self-esteem and group performance as determinants of egocentric perceptions in cooperative groups. *Human Relations*. 29, 1163-1176.
- Stokols, D., & Schopler, J. (1973). Reactions to victims under conditions of situational detachment: The effects of responsibility, severity and expected future interaction.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25, 199-209.
- Thompson, S. C., & Kelley, H. H. (1981). Judgement of responsibility for activities in close relationships.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41, 469-477.
- Weary, G., & Arkin, R. M. (1981). Attributional self-presentation. In J. H. Harvey, W. J. Ickes, and R. F. Ridd (Eds.), *New directions in attribution research* (Vol. 3), Hillsdale, N. J.: Erlbaum.
- Wortman, C. B. (1975). Some determinants of perceived control. *Journal of Personality and Social Psychology*. 31, 282-294.
- Zuckerman, M. (1979). Attribution of success and failure revisited, or: the motivational bias is alive and well in attribution theory. *Journal of personality*. 47, 245-287.

ABSTRACT

Effects of Performance and Attribution Informations on the Observers' Evaluation of the Attributor

Kim, Jin-Kook

Department of Psychology, Chonnam National University

Four experiments were conducted to determine the effects that attribution and performance informations have on observers' evaluation of the performer. Observers evaluated performers, artificial stimulus persons, on four dimensions: ability, modesty, honesty, and likability. Self-serving internal attribution for success and external attributions for failure produced low evaluations in general. In contrast, counter self-serving attributions produced higher evaluations. These tendencies were especially strong when performed tasks were thought to be externally determined. In the evaluations of performer's ability, performance results were the important determinant. It was especially true when the task is highly ego involved. When the tasks are presumably externally determined, however, attribution informations made significant contribution. Self-serving attributions produced low evaluation on the modesty dimension, and counter self-serving attributions vice versa. And when a other person, a partner, is involved in task and attribution, modesty evaluations became extreme. Honesty evaluations were not significantly affected by independent variables so much as other dependent measures were. Likability evaluations were strongly affected by performance results when tasks were internally determined. In case of externally determined tasks, performance results x attribution was the most influential factor on the likability evaluation. Interrelationships among dependent variables were examined through multiple regression analyses. In general, modesty ratings were the most powerful predictor. The implications and limitations of these results are discussed.